

온라인 Win-Win 전략을 만드는 마법사들

인 인터넷 이용자 수 3천만 시대,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은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웹쇼핑을 하다보면 사이트 규모를 막론하고 국내 주요 쇼핑몰들의 배너를 쉽게 볼 수 있다. 쇼핑몰 광고가 어떻게 작은 사이트에서도 노출되고 있는걸까. 인터넷 리서치 전문기업인 코리아 클릭의 링크프라이스 사업부 '어필리에이트 지원팀'은 국내 쇼핑몰들과 사이트들을 제휴시켜 주는 이른바, '제휴마케팅' 업무를 하는 곳이다. 어필리에이트 지원팀은 총 8명으로 사업부 내에서 가장 많은 팀원을 자랑한다. 뭉칠 때는 확실하게 뭉치고 업무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조화를 이루는 '의 좋은' 팀이다. 더구나 이들의 업무는 각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그 조화로움은 더욱 빛을 발한다.

"저희 팀은 광고주(머천트)와 제휴사이트(어필리에이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온라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저희 각각의 개인적 역량은 어디에 내놔도 일당백을 자랑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김윤호 대리의 말처럼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온라인 '개미군단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과 상품판매, 그리고 이벤트 참여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광고주에게는 확실한 광고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제휴사이트는 목표달성을 통한 커미션 수익을 얻는다. 온라인상에서 한창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온켓이나 G마켓 같은 대형 쇼핑몰의 성공 뒤에는 어필리에이트 지원팀의 역량과 노하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광고주와 제휴사이트간의 궁합을 맞추고 그것을 이어주는 일이 마치 신랑·신부를 이어주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큼니다. 그 보람 중 하나가 사업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를 맺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 대신 직접 그들을 만나고, 이주 가끔은 술 한잔도 하면서 인간적인 유대를 전제로 한 제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들이기에 요즘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인격모독이나 초상권침해 등의 네티켓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들이 말하는 '인터넷 속 에티켓'에 대해 들어보자.

Tip

제휴마케팅이란?

상품판매,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카드발급 등 광고주가 내세운 조건에 대해 성과가 발생했을 때 미리 약속된 광고비를 제휴 사이트에 지급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 광고주를 머천트(Merchant), 제휴사이트를 어필리에이트(Affiliate)라고 부른다.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매너까지도 없을뿐? 인터넷 속에도 도덕은 있다 **전인규 대리**

자신의 의견은 확실하게 그러나 항상 글 올리기 전에는 남을 한번 더 생각하는 정도의 센스 **김윤호 대리**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김진혁 대리**

인터넷 공간에서 물 흐르는 사람들! 인터넷 강국을 떠나거나~ **임재완 대리**

스스로 지키는 네티켓만이 맑은 공기 속 인터넷 숲을 만든답니다. **이숙진 팀장**

당신의 말 한마디는 당신의 인격이자 수준입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마세요. **이동욱 사원**

예쁘고 고운 말을 쓰세요. 항상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기자고요. **이선경 사원**

보이지 않는 에티켓? 하지만 모니터에는 그대의 인격이 비친다. **김인경 사원**